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과 시사점

서상현 수석연구원, 철강연구센터 (unisa21@posri.re.kr)

목차

1. AfCFTA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
2. AfCFTA 출범과 아프리카 경제구조 변화
3. AfCFTA 출범 이후 투자 및 무역분야 진출 분석
4. 시사점

* 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Executive Summary

- '19년 7.7일 아프리카 54개국이 가입한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아프리카는 무역과 투자가 증가할 전망
 - 아프리카연합(AU)은 2022년까지 90%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아프리카 대륙 내 무역을 53% 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임
 -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AfCFTA에서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면 2040년까지 역내 무역 규모가 15~2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AfC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아프리카는 12.5억 명의 인구를 토대로 U\$2.2조에서 U\$3.4조 사이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보임
- AfCFTA 발효로 아프리카 산업, 무역 등 경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
 - AfCFTA 회원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면 단기적으로 아프리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아프리카 역내 무역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역내 무역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인프라, 서비스, 기술 산업 분야에서 역내 투자 증가로도 이어질 전망
 - AfCFTA 협정 1단계에서 회원국은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분쟁 해결 규칙·절차에 동의했으며, 2단계는 경쟁 원칙, 투자, 지적 재산권 등의 협약을 다룰 예정임
- AfCFTA 활용을 통한 아프리카와의 무역 증대와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주요 거점국가를 선정해 역량을 집중한 후 인근국가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
 - 주요 투자 분야로는 의류 및 섬유,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업과 이차전지원료인 코발트, 흑연 등의 자원, 제분·제당 등 기초 제조업이 우선
 - 주요 무역 분야는 한국의 강점이 있는 IT, 가전, 자동차, 화학제품과 생필품 등이며 주요 대상 국가는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모로코 등임
- AfCFTA 본격 출범에 맞춰 대아프리카 무역 확대와 선별적 투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아프리카 중산층 소비자를 우선 타깃으로 선정하여 수출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분야 분석과 선정 필요
 - 이 밖에 거점국가를 활용한 우회 수출확대 전략과 AfCFTA 출범에 따른 교역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한 수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아프리카의 정치, 경제 리스크를 감안, 진출 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1. AfCFTA 주요 내용과 추진현황

□ 2019년 7월 7일 니제르 수도 니아메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연합(AU) 정상 회의에서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 공식 발표

- AfCFTA에는 아프리카 연합 55개 회원국 중 에리트리아를 제외한 54개국이 가입을 서명함(에리트리아도 추후 참여 검토 발표)
- AfCFTA의 협상은 2단계로 진행됨
 - AfCFTA 설립 협정 1단계 평가에서 회원국은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분쟁 해결 규칙·절차에 동의했으며, 2단계로 경쟁 원칙, 투자, 지적 재산권 등에 관한 협약을 2020년 7월 이후 다룰 예정임
 - 1단계에서는 상품 무역에서 관세 라인 기준으로 90% 이상 관세 철폐, 비대상 품목은 3% 미만으로 줄이는 것으로 합의됨
 - 또한 나머지 7%의 민감 품목은 향후 10년 내 완전 철폐하며, 다만 후발 개발도상국에 한해 13년 내 완전 철폐하기로 결정
 - 각국이 만드는 상품 무역의 관세율 양허표는 2019년 7월, 서비스 무역 약속표의 제출 기한은 2020년 2월까지로 승인을 거쳐 정식 적용 예정

□ 이로써 아프리카에서는 WTO 체제 이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가입한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함에 따라 역내 교역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 아프리카 연합은 2022년까지 교역상품에 대한 90% 관세 철폐로 아프리카대륙 內 무역규모를 17%에서 53% 이상 증가를 목표로 설정
 - 미국 브루킹스(Brookings) 연구소에 따르면, 아프리카 전체 무역에서 역내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17%로 북미 31%, 아시아 59%, EU 69%에 비교하면 낮은 상태임
 - 한편,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AfCFTA에서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면 2040년까지 역내 무역 규모는 15~25% 증가 전망
- 특히 관세인하에 따른 교역증대는 15~25% 수준이지만, 비관세 장벽이 50% 가량 철폐되면 관세인하 대비 2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AfC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면서 아프리카는 12.5억 명의 인구를 토대로 U\$2.2조에서 U\$3.4조 사이의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보임
 - 이는 아프리카의 낮은 생산성 향상과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며

장기적으로는 소득 수준을 높이고, 소득 격차 및 빈곤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국가간 이해관계 충돌, 높은 운송비용과 비관세 장벽, 제도적 기반 미비, 역내국가 간 산업 및 무역구조의 보완성 결여 등이 향후 걸림돌

특히 열악한 인프라와 과도한 통관지연 등은 아프리카의 시장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예상됨

2. AfCFTA 출범과 아프리카 경제 구조 변화

□ AfCFTA 공식 발효로 아프리카는 산업과 무역구조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

- AfCFTA 회원국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면 단기적으로 아프리카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아프리카 역내 무역은 더욱 탄력 받을 전망
 - 아프리카 기업들이 사업활동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관세혜택으로 인해 아프리카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승하게 될 것임
 - 역내 무역 증가는 단기적으로 서비스, 기술 산업 분야에서 역내 투자의 증가로도 이어질 전망
- 장기적으로는 대아프리카 투자 확대와 고부가가치 상품 교역에 따른 기업과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 등도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아프리카 국가 중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갖춰져 있는 남아공 등은 제조업이 발전하고 그 외 국가들 또한 국경을 넘어선 범국가적 가치사슬(Value Chain)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교역규모 확대와 산업의 생산성 확대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현지인의 외국계 기업 투자도 늘어날 전망
 - 이를 통해 자원 의존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제조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다각화, 실업률 개선 등의 효과가 수반될 것으로 전망됨
- 인구의 지속적 증가라는 아프리카 지역의 장점을 살려 고용 및 기업 활동 전략을 구상한다면 새로운 시장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음
 - 2050년 아프리카 인구는 2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노동인구의 26%를 보유하고 선진국 경제성장률의 두 배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AfCFTA 발효로 아프리카 역내 무역이 증가하면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산업화의 기회가 확대될 것임

-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산업 분야의 성장과 산업 다각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AU 또한 대륙 차원에서 산업 개발의 가속화라는 계획을 채택
 - AfCFTA가 아프리카 시장을 효과적으로 통합한다면 이 같은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실제로 AfCFTA 설립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40년에는 산업 부문 역내 무역이 25~30%(U\$360억~44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ECA, 2018)
 - 농업 및 식량 무역은 약 20~30%(U\$95억~170억), 에너지 및 광물산업 교역은 약 5~11%(U\$45억~90억)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제조업 부문 수출도 AfCFTA를 통해서는 4.7%(U\$211억)까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AfCFTA 공식 출범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는 역내외 교역 확대 이외에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 증가가 있음
 - 아프리카 국가 간 무역 장벽이 줄어들면 더 큰 시장이 생기며, 따라서 적절한 위치를 선점해 아프리카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매력력이 더욱 커질 전망

이러한 투자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생산 능력을 높이고 경제를 다각화하는 데 매우 중요함

3. AfCFTA 출범 이후 투자 및 무역분야 진출 분석

□ AfCFTA 출범에 따른 아프리카의 무역 증대 및 투자 확대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AfCFTA 본격 실행 시 국내외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은 보다 가속화할 전망
 - 아프리카 역내 시장이 통합됨에 따라 교역이 더욱 활발해지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도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
 - AfCFTA가 본격 추진되면 노동력과 시장 규모, 전력과 물류 인프라 등 비교 분석을 거쳐 경쟁력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진출이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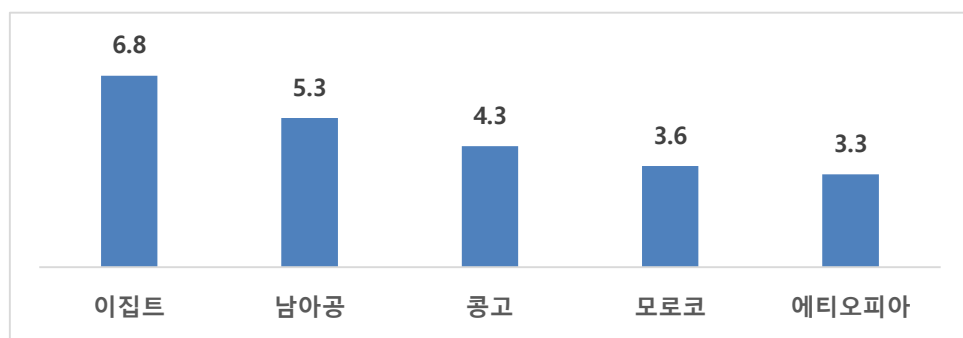
□ AfCFTA 출범으로 한국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투자와 무역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투자

□ 현재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천연가스 생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이집트에 가장 많은 FDI가 유입됨

○ 다음으로 남아공과 콩고공화국, 모로코, 에티오피아 등의 순임

〈아프리카 FDI 유입 상위 5개국 현황(U\$십억)〉



출처: UNCTAD, 2019

○ 최근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려는 각국의 산업정책과 AfCFTA 본격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투자가 증가할 전망

- 에티오피아의 경우 제2차 Growth & Transformation Plan(2016~2020)을 발표하고 섬유와 의류, 신발 등 경공업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을 유인
- 이 결과 에티오피아는 중국과 터키, 인도, 한국 및 유럽기업의 섬유 및 의류와 신발 생산의 아프리카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AfCFTA 본격 시행 시 이들 분야에 대한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

□ AfCFTA를 활용한 투자 전략 수립 시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아프리카 주요 거점국가를 선정해 역량을 집중하고 이후 인근 국가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

- 아프리카 주요 국가들의 GDP, 소득수준, 인구, 투자유입, 사업용이성 등을 비교 분석한 끝에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집트, 모로코, 에티오피아, 케냐 등을 투자 거점국가로 선정함(참고 1 참조)
- 이들 국가는 아프리카 전체 경제 및 투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의 경우 제약 및 식품가공, 자동차 조립 등이 유망하며, 남아공에서는 크롬, 니켈 등 이차전지 소재와 자동차 및 부품 그리고 금융서비스, 이집트는 신재생에너지, 화학과 정유 등 품목에 주로 투자
- 이 밖에 모로코는 자동차 부품과 농기계, 모바일 금융이, 에티오피아는 섬유 및 의류, 제당 등 식료품이, 케냐는 섬유 및 의류, 모바일 금융 등이 유망

〈아프리카 주요 투자국 및 투자 분야 분석〉

국가	주요 투자 국가	주요 투자 품목	국내기업 투자 가능 분야
나이지리아	미국, 남아공, 중국, EU	석유 및 천연가스, 자동차,	· 소비재: 제약품, 조미료 등 · 제조업: 자동차 조립, 의류
남아공	중국, UAE, 네덜란드, 미국, 영국	광업, 자동차, 금융, ICT	· 자원개발: 이차전지 소재 ·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 · 금융서비스
이집트	영국, UAE, 미국	ICT, 에너지, 철강 등 제조업	·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 제조업: 자동차, 화학, 정유 · ICT: 모바일 금융 및 전자정부
모로코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중국	자동차 및 부품, 항공부품, 농산물가공, 금융	· 제조업: 자동차 부품, 농기계 · 금융: 은행 및 보험, 모바일뱅킹
에티오피아	중국, 터키, 인도, UAE	의류 및 신발, 전자제품, 자동차, 농업	· 제조업: 의류 및 섬유, 가전제품 · 소비재: 제약품, 담배
케냐	중국,	ICT, 신재생에너지, 섬유, 금융	· 소비재: 식품, 제약품 · 제조업: 섬유 및 의류 · ICT: 모바일 뱅킹 및 전자정부

출처: 각종자료 분석 후 저자 작성

② 무역

□ AfCFTA는 궁극적으로 회원국 관세의 90%, 즉 개별 상품 품목에 대한 관세를 자유화함으로써 아프리카 내 무역 증가를 목표로 함

- 따라서 현재 17%에 불과한 역내 무역 비중은 아프리카 연합의 전망처럼 향후 50% 이상 높아지고 역외 무역도 증가할 전망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내구재 기준 잠재적 소비층은 2025년까지 약 40% 가량 확대될 것으로 추정
- 특히 한국의 대아프리카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자동차와 휴대폰 구매가능 인구가 연간 4% 이상의 증가율로 확대될 전망으로 한국의 수출 증가 예상
 - 자동차 수출의 경우 연관 산업인 자동차 부품도 함께 수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효과가 클 전망

- 투자와 마찬가지로 무역에서도 아프리카 54개국 중 우선적으로 교역을 전개할 거점국가 선정 필요
 - 가장 적합한 접근 방법은 아프리카 지역을 특성별로 권역화하고, 권역별 가장 유용한 국가를 교역 대상 중점국으로 선정하는 것임
 - 이 거점국가를 허브로 삼아 해당 권역에 속한 다른 국가로 교역을 확산하는 “시장의 세분화”와 “선택과 집중”을 기반으로 한 혼합접근 전략이 바람직
- 거점 후보국가는 (1)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2) 인프라 시설의 수준, (3) 한국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기반으로 한 영향력 등 세부 선정요인에 따라 결정
 - 이를 통해 최종 거점국가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아프리카 무역 주요 거점국가〉

권역	국가	품목
북부	이집트	곡물
	모로코	자동차 및 부품
동부	케냐	ICT 및 가전
	에티오피아	의류제품부자재
서부	나이지리아	자동차, 생필품
	코트디부아르	농산물가공품
남부	앙골라	산업부재
	남아공	자동차, 가전



출처: UNCTAD, World Bank, 무역협회 등 자료 활용

□ 거점 후보국가들은 지역 내 경제 및 인구규모 그리고 무역량이 큰 국가들로 정치적 영향력도 큼

- 북부의 이집트와 모로코는 중동 및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관문으로 지리적 중요성이 크며, 많은 국가들과 FTA 등을 맺고 있어 인근 국가 및 FTA 既 체결국들로 교역 확산 가능
 - 주요 수출품으로는 곡물, 자동차 및 부품, 한류를 활용한 화장품과 IT 제품 등이 유망
 - 특히 모로코는 아프리카 자동차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최근 자동차 수출 증대를 위해 부품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동부의 케냐와 에티오피아는 최근 물류 인프라가 많이 개선되어 상품 수출

시 물류비용 등 측면에서 경쟁력이 강화됨

- 에티오피아는 신발, 섬유 및 의류산업 등 제조업의 발달로 이에 필요한 부자재 납품 활용도가 높아져 이들 상품의 수출 증대 예상
 - 케냐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61개의 특별경제지역(SEZ)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전략 필요
 - 주요 수출품으로는 의류 등 부자재와 가전제품, 농가공 식품 등이 유망
- 서부는 아프리카 최대 인구를 보유한 나이지리아와 아프리카 최고 성장국 중 하나인 코트디부아르가 주목 받음
-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소비시장으로 생필품과 제조업 부자재 등의 수요가 많음
 - 인근 코트디부아르는 최근 높은 경제 성장률에 따른 수입 수요도 많지만, 나이지리아로의 우회 수출 국가로서의 역할도 부각됨
 - 주요 수출품으로는 제약 등 생필품, 자동차, 휴대폰 등이 유망
- 남부의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가 가장 많은 국가이고, 앙골라는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주목됨
- 남아공은 국내 제품이 중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갖추었고, 역내 교역량도 가장 많아 다른 아프리카 역내 수출을 위한 우회 기지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앙골라는 최근 190여 개에 이르는 국영기업의 민영화 작업을 추진 중인데, 정부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중간재를 수출할 수 있는 기업 인수를 추진하여 무역 증대를 노려볼 수 있음
- 주요 수출품으로는 자동차, 가전, 휴대폰, 석유화학 제품, 산업 플랜트의 중간재 및 기자재, 농수산물 가공품 등이 유망

4. 시사점

- 한국과 아프리카의 투자 및 교역은 한국 전체 비중의 1% 내외로 미미한 실정임
- 그러나 AfCFTA 이행과 상품 무역 자유화로 한국 기업들의 아프리카로의 FDI 유입 및 교역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AfCFTA는 역내 무역 활성화를 통한 아프리카 시장 확장은 물론, 무역 관련 인프라 네트워크 개선 및 통관 비용 등의 감소에 기여할 전망
- 또한 FDI 유입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륙 내 비즈니스 활성화, 규모의 경제 기회도 창출될 전망

□ 따라서 AfCFTA 본격 출범에 맞춰 한국기업들의 대아프리카 무역 확대와 선별적 투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AfCFTA 체제하의 아프리카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소비층 수준과 최근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 분석 그리고 거점 국가활용 방안 등임
 - 이를 위해 먼저 아프리카 중산층의 소비 니즈 분석을 통해 맞춤형 수출 증대를 모색해야 함
 - 또한, AfCFTA 출범에 따라 성장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아프리카 산업 분야(ICT, 기초생필품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 마련도 필요
 - 이 밖에 AfCFTA로 지형 변화가 예상되는 아프리카 역내 경제 및 교역 구조를 분석하여 제품 수출전략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거점국가를 활용한 우회 수출 확대 전략도 마련해야 함
- AfCFTA가 출범했지만 성공적 안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진출 시 유의해야 함
 - 첫째, DR공고처럼 잠재력이 큰 반면 정치적 리스크나 사업환경이 열악한 국가들이 다수 있어 진출 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둘째, 금융 및 물류 인프라 미비로 다른 지역 대비 높은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진출 전략 수립 필요
 - 셋째, AfCFTA가 공식 출범을 선언했지만 아직 원산지규정 등이 협의 중에 있는 등 규정과 제도 등에 대한 진행사항 등을 꾸준히 분석해야 함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9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의뢰한 연구(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 방안)의 공동연구분야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참고 1. 아프리카 주요국의 경제지표, 2018 기준〉

	1위	2위	3위	4위				
	GDP (십억U\$)	1인당소득 (U\$)	인구 (백만)	투자유입 (억U\$)	주요투자품목	한국 투자금액 (*19누계, 백만U\$)	AF 인프라 지수 (AIDI Index, 순위)	사업 용이성 (순위)
알제리	177.5	4,224.6	42	15.06	석유, 천연가스, 자동차, 의약품	209.8	57.08 (8위)	157
이집트	234.3	2,357.7	99.4	68	ICT, 에너지, 제조업	352.8	87.23 (2위)	120
모로코	118.8	3,282.1	36.2	36.4	자동차 및 부품, 항공부품, 금융	163.5	64.87 (7위)	60
수단	616	1,554.5	39.6	11.36	농업, 광업, 제약	149.5	16.51 (33위)	162
튀니지	38.8	3,324	18.3	10.36	신재생에너지, 물류, ICT	3.7	69.30 (6위)	80
코트디부아르	47.8	1,917.3	24.9	9.13	광산/채굴, 금융, 통신, 제조업	60.9	23.28 (22위)	122
가나	65	2,207.8	29.4	29.9	농산물 가공제조, 유통업	136.7	29.51 (13위)	114
나이지리아	424.6	1,971.7	195.9	20	석유, 천연가스, 자동차	301.8	22.76 (24위)	146
DR콩고	48.3	575.4	84	14.95	광업, 도소매업, ICT	10.9	7.97 (50위)	184
에티오피아	84.3	791.9	106.4	33.1	의류, 신발, 전자, 자동차, 농업	40	10.17 (48위)	159
케냐	83.7	1,641.8	51	16.3	ICT, 신재생에너지, 섬유, 금융	10.2	25.92 (18위)	61
우간다	29	654	44.3	13.4	ICT, 농산물, 에너지	6.1	21.17 (26위)	127
탄자니아	55.9	946.1	59.1	11.05	광물, ICT, 금융 서비스, 부동산	7.8	14.11 (41위)	144
모잠비크	14.4	426.3	30.5	27.1	농업, 수산업, 에너지, 인프라	42.8	11.89 (48위)	135
남아공	374.9	6,532.1	57.4	53	광업, 자동차, 금융, ICT	313.6	78.43 (4위)	82
잠비아	26.3	1,491.9	17.6	5.7	광물, 농업	1.15	23.22 (23위)	87
앙골라	108.7	3,532.2	30.8	△57.2	석유 및 천연가스, 농업, 석유정제	37.4	18.88 (30위)	173

자료: World Bank, Global Insight, UNCTAD, 수출입은행 데이터 기반으로 저자 작성.

[참고자료]

[홈페이지]

한국수출입은행, “<https://stats.koreaexim.go.kr/sub/interregionalStatistics.do>”

UNCTAD, “<https://unctad.org/en/pages/PublicationWebflyer.aspx?publicationid=2463>”

World Bank, “<https://www.doingbusiness.org/en/data>”

[언론]

Azikiwe 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Prospects and Problems for Implementation,” Pambazuka News, 2018.4.19.

BBC. “Nigeria signs African Free Trade Area Agreement,” 2019.7.07.

[전문 자료]

ECA, 2018.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Prospects and Problems for Implementation”

Intra-African Trade Fair, 2019. “Transforming Africa”

Brookings Institute, 2019. “Intra-African trade: A path to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inclusion”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CA), 2018.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Towards the Finalization of Modalities on Goods”

박영호, 2018. “AfCFTA 출범과 한국의 대아프리카 무역 시사점”, *아프리카 주요이슈 브리핑*